

아사히 가세이, 새로운 중공 필라멘트 「트윈 에어」를 개발

일본의 아사히 가세이(旭化成)는 특수 중공(中空)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인 「트윈 에어(Twin-air)」를 개발하였다.

이는 지금까지 개발된 구멍이 하나인 중공 필라멘트와는 달리 단면이 “8”자 모양으로 두개의 구멍이 붙어있는 이형(異型) 중공 폴리에스테르 · 필라멘트사이다.

지금까지 중공사의 중공율(中空率)은 약 20%였으나, 새로 개발된 중공사의 중공율은 약 30%로 훨씬 높아서 어느 것보다도 중량에 비하여 가볍게 느껴지는 경량감(輕量感)을 보이고 있다. 종전의 중공사와 비교하면 표면적(表面積)이 크므로 흡수성이 뛰어나고 특수한 모양과 부드러운 촉감도 갖고 있다.

개발된 상품으로서는 직물, 니트, 투웨이 · 트리코트를 비롯하여 원사, 가공사, 스판라이크사 등과 같이 다양하다.

이들 소재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을 살려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, 소프트감을 살림으로써, 셔츠, 스웨터, 일래스틱 · 아이템, 포박조(布帛調) 트리코트, 방풍니트 등과 같이 기능성을 발휘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다. 이 밖에도 논코트(non-coat) 내수투습소재, 보다 소프트한 고내수압, 고투습, 내구발수소재도 추구하고 있으며, 스트레치성을 살린 소재로서도 용도를 개발하고 있다.